

아름다운 나의 벗 성규에게



친 충북민협 홍보부장 유수남

충북 민주운동협의회 홍보부장, 충북 민주인구운동연합 사무처장, 청주시 부설 청주이카데미 시민교육부장, 여성부 차관비서관, 강혜수 의원 보좌관

고 정성규 동지는 예전에 그랬듯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 스물다섯 시퍼런 청년으로 살아 있다.
성규가 하늘로 돌아간지도 어느덧 열여섯 해가 흘렀다.

학생운동가로서의 삶

정성규는 1964년 6월 27일 충북 청원군 강내면 사인리에서 부친 정현성님과 모친 홍순숙님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오랫동안 이웃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해온 조부님으로부터 대물림된 기독교 신앙 속에 성장했고, 80년 봄에 청주 신흥고등학교에 입학했다. 83년 충북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한 성규는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민족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신앙에 더 다가서게 되었고, 교회와 학교에서 학생운동에 앞장섰다. 85년 인문대학교 학생회장을 맡아 후배들을 지도하고 각종 시위를 주도하던 성규는 86년 집시법위반으로 구속되었고 미평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구속되기 전에 수배생활 중이던 성규에게 지금까지도 가슴을 아리게 하는 미안함이 있다.

성규가 숨어 있는 방에 책과 먹거리를 가져다 주던 내게 “야! 고기좀 먹자. 다음엔 돼지고기 좀 사와. 그냥 오면 너 뜯을지도 몰라.”라며 수배생활 중에 짜증 한번 낸 적이 없던 애가 반찬 투정(?)을 했다. 나는 “야! 다음에 올 때는 소갈비 사올테니 기다려.”라고 큰소리쳤지만 가두 집회 후유증으로 바로 찾아가지 못했고 성규는 얼마 후에 학내집회 후에 붙잡혀 구속되었다.

민통련 총복지부(총북민협) 실무자로서의 삶

성규는 87년 출소한지 이틀만에 총북민주운동협의회(민통련 총복지부)에 출근을 시작했다. 총북민협은 부문운동의 발전과 청년대중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87년 대선 당시 공정선거감시단원을 중심으로 청주지역민주청년연합을 창립하였고 성규는 청주민청의 조직 부장을 맡게 되었다. 반독재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모든 것을 바쳐 온 성규는 청주에서의 첫 대규모 공개 시민참여 통일행사인 ‘청주시민통일한마당’을 성공적으로 치루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88년 여름에 ‘통일문제시민강좌’를 마치고 수강생들과 함께 매포 수양관에서 수련회를 하던 중에 익사사고로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었다.

수련회는 경찰의 감시대상이었고 성규는 참가자들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신변의 안전을 위해 사복경찰들의 시선에서 가능한 벗어나려고 하였다. 산 중턱에 있는 수양관 밑에 있는 냇가의 모래밭은 바로 그런 곳이었다. 성규는 대열을 냇가로 안내하면서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앞서가며 물살의 흐름과 깊이를 살피고 있었다. 정말 한순간이었다.

“성규형이 안보여요.” 순간 성규가 물속에서 솟아 올라왔다. “성규형!.....”

이렇게 허망하게 성규는 떠나갔다.

선후배 동지들은 한달이 넘도록 냇가에서 숙식을 하며 밤낮으로 성규를 찾았고, 서울에서도 이명식 선배님 등이 내려와 성규를 함께 찾아 주었으며 군부대까지 동원해서 성규를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다. 동지들은 수시로 매포 수양관 냇가를 찾았고 심지어는 어디서 지나가는 성규를 보았는데 못 쫓아가서 확인을 못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다음해 부활절 날이었다. 성규에게 포도주와 부활절 달걀을 가져다 주려고 매포를 찾았는데 한없이 쓸쓸해진 매포 냇가에는 골재채취 포크레인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포크레인 기사와 포도주와 달걀을 나누며 우리가 찾아온 사연도 이야기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연락처를 건넸다.

며칠 후 이른 아침에 전화가 걸려왔다. 성규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연락이었다. 연철흙

(당시 청주민청의장, 현 청주 시의원) 선배님과 달려가 보았다. 골재채취 과정에서 성규가 발견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차마 시신이 되어버린 성규를 볼 엄두가 나지를 않았다. 마음을 수습하고 다가가서 보니 성규는 지난 여름 입었던 곤청색 반팔티만 약간 색이 바랬을 뿐이었고 기적처럼 온전함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매포 냇가는 대청댐 물을 방류하는 곳이었으나 그런 안내는 어디에도 없었고, 사고 당시 대청댐 물이 방류되는 시간이어서 물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또한 골재채취로 물 속의 웅덩이가 생겨 사고 원인이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너무나 많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성규의 시신은 청원군 가덕면 8구역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동지들은 정성을 다해 장례를 모셨고 나도 동지애와 우정을 담아 비문을 적었다.

민주화를 위한 가족들의 삶

성규는 연애조차 없었던 절대순수의 동정 청년이었다. 어느 여자 후배를 무척이나 아꼈고 연정을 품었으나 몇 차례 사랑의 편지를 전하려던 시도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채 하늘로 돌아갔다. 그러나 효성과 형제간의 우애는 정말 각별했다. 또한 동지들을 아끼고 후배들을 보살피는 일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고 민중과 시민들에게는 종교적 경지의 섬김을 보여 주었다.

성규와 함께 민주화운동에 합류한 가족들은 모두 충북지역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 특히 모친이신 홍순숙님께서도 민가협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면서 지역 재야조직의 지도위원으로 모든 동지들의 어머니로 살아오셨다. 오빠인 성규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여동생 정혜영님은 오빠의 통일운동을 이어가는 심정으로 통일운동에 참여하여 실무를 담당해 왔고, 지금도 통일시대충북연대에서 회원사업팀장을 맡아서 열심히 뛰고 있다.

민통련 20주년을 맞으며 성규네 가족 인터뷰

어머니 홍순숙님 : 성규는 다른 속 썩인 거 아무것도 없어, 성격도 꼼꼼하고 정리도 잘하고 나한테도 너무나 잘했어. 친구들은 늘어놓고 성규는 치우는 식으로 꼼꼼했어. 시어머니 처럼 잔소리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구, 친구들도 성규한테 많이 혼났다고 그러더라구. 책장에 책 하나도 항상 똑바로 꽂혀 있지 않으면 바로 해놓고 그랬어. 민주화운동 한다면서 데

모한다고 속 썩인 거 그거 밖에 없었어.

서원대에서 데모하는데 경찰들은 짝 깔려 있고 기조라는 성규 친구한테 한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했더니 총학생회 가서 만나게 해주더라고. 나는 떡살을 쥐고 같이 가자고 끌고 나오려고 했는데 끝내 이것만은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친구들은 말리고 그래서 그냥 나왔던 기억이 나.

그 때 성규가 했던 말을 생각해 보니 다 맞더라고. 전두환이가 대통령인 줄로만 알고 있었지 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뭘 알아. 전두환이가 어떻게 장세동이 어떻게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이후에 성규가 했던 얘기가 TV에 다 나왔잖아. 그래서 성규가 했던 말이 맞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지.

사뭇 밑에 층에서 친구들과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 명이 모여서 밥해달라고 해서 밥해 주고 그랬고, 사람들이 모여서 밥새고 그랬었지. 옆집에 충북대학교 교수가 살았는데 맨날 늦게까지 떠들고 그런다고 혼내고 그랬어. 그때까지는 공부하는 줄로만 알았어.

대학 다닐 때 도시락을 싸달라고 하면 밥을 푹푹 눌러서 많이만 싸 달래. 그 옛날 노란색 큰 도시락에 밥을 싸줬다고. 고등학교 때에는 밥 조금만 싸달라고 하더니 이상하게 대학가서는 밥을 많이 싸달라고 하더라고. 그 때에는 밥 많이 먹는다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도시락 하나를 몇명에서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고. 충북민협에 다닐때도 밥을 사먹을 수는 없으니까 밥을 거기서 해먹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쌀도 많이 가져가고 김치도 많이 가져가고 그랬어.

한번은 집에 있는데 대학교 교수라고 하면서 서너 명이 찾아왔었어. 마실 것을 달라고 해서 부엌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성규 책상을 뒤지더라고. 그걸 나한테 들켰어 그래서 왜 남의 책상을 뒤지냐고 따졌지.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경찰이야. 사복하고 와서 속인거야. 그래서 알게 되었지. 집 근처에 와서 잠복도 하고 그랬었어.

대학도 졸업도 못했다고. 한 학기 남겨놓고 교수님이 기말고사 시험 안 봤다고 보고서를 내야 한다고 학생들 것 중에서 실한거 하나를 교도소로 보냈다고 그대로 베껴서 보내라고 했어. 그런데 끝내 안보냈다고 하더라고. 교수님께 부담주기 싫다고 그래서 졸업도 못했어.

성규는 막걸리를 잘 먹었어. 일을 하면 막걸리 힘으로 일한다고 하면서 막걸리 좋아했고 많이 먹었어. 한번은 교도소 갔다와서 담장을 고쳤다고. 교도소에서 돈도 많이 가지고 나왔어 친척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영치금을 넣어 주면 그걸 모았다가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거야. 그 돈으로 집에 와서 담장을 고쳤다고. 우리집 담장이 부서져 있었거든. 경운기로 모래를 퍼

다가 동규랑 그걸 고쳤는데. 나보고 막걸리 사달라고 해서 동규는 술을 안먹는데. 성규는 일하면서 막걸리를 먹으면서 일했어.

여동생 정혜영님 : 고등학교 때 나이키 신발을 하나 샀는데 오빠한테 혼나가지고 신발장에 신발을 못 넣고 다녔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신고 다니는데 못 신고 다니게 해서 감춰놓고 신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수배중일 때 같은 반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애 언니가 오빠랑 같이 활동했었나봐요. 그래서 그 친구는 편지를 나에게 주고 나는 받아다가 어머님 갖다 주고 그랬어요. 편지 써서 친구를 통해서 주면 그게 인편으로 오빠에게 가고 갖다 주면 그 친구가 언니 갖다 주고 그랬어요. 인편으로 편지도 전해 주고 용돈도 전해 주고 그랬어요.

고 정성규 동지 첫 추모제에서 성규에게 보낸 편지

아름다운 나의 벗에게

네가 그림다 말하지 않는 것은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보이지 않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을 너를 아는 모든이들은 알고 있어, 왜냐하면 그분들도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이지.

성규야! 책을 뽑아보고 방구석에 밀쳐놓은 것이 한두권씩 자리를 잡을 때면 책꽂이의 책들이 순서가 바뀌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으려던 너의 매운 손끝과 우리 모두의 시어머니로 군림하던 그 잔소리에 화들짝 놀라 얼른 책정리를 서두르곤 한단다. 가끔 논쟁이 실천을 가로막거나, 주장의 다름이 매마른 가슴으로 나타날 때면 썰렁해지는 마음 한구석을 주체못하는 내게 멍머루빛 눈망울을 때굴때굴 굴리며 담배한데 꼬슬르고는 일에 몰두하던 너의 모습은 큰 위로가 된단다.

성규야! 민청엔 너가 모르는 많은 얼굴이 들벅들벅 하단다. 네가 뿌린 씨앗들이 한 그루의 푸른나무가 되었을 뿐 아니라 컴퓨터를 만들어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었음이 아니겠니.

목수보다는 농부처럼 일에 임하자던 성규야!

맵시있는 나무보다 가지와 잎사귀가 풍성하여 새들을 깃들게 하는 나무이기를 바랬었지. 맑기만한 청정수보다 고기가 살 수 있고 수초들도 살 수 있는 연못이기를 원했었지...

성규야! 동지들에겐 웃음을 팔고 적들에겐 돌과 꽃(?)을 팔던 우리모두의 꽃파는 총각노릇을 앞으로도 계속해 주어야겠다. 이제 원칙에 철저히되 작은 것에도 섬세하게 배려할 줄 알던 너는 청년의 선봉장으로 해방조국을 향해 앞서가는 민청의 기수가 되었구나.

청맥으로 살아 청년의 기상이 되고 혈맥으로 이어져 민청의 심장을 고동치게 하는 자주, 민주, 통일만을 절규했던 젊은 벗이여!

해방을 향해 저돌적으로 달려나가던 그 기백으로 언제나 우리 속에 함께 호흡하며 해방을 향해 달리자!

통일염원 46년 8월 13일 친구 수남이가

친구에게

서럽구나
좁쌀같은 삶이 서럽구나
주먹과 발길로 멍이든
너의 두 눈에 눈물이 고이고
바보짓을 했다며
찢겨진 상처를 꿰매주던
늙은 의사의 씩씩한 말처럼
덜 비겁한 이유로
너는 울어야 하는구나
그러니 친구야,
술한 폭력 아래서
고개 숙이며 살아야 하는
좁쌀같은 우리의 삶이
마침내는 비굴이 아니어야 하듯
너는 결코 어리석지 않았단다
너의 흐느낌이 진정 서러움이 아닌
우리들 막힌 가슴 속
뜨거운 피의 모음임을 안단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소름 돋도록 차가운 폭력이
명치 끝에 와 닿아도 마지막 한 번은 버티어야 한다
친구야 이제그만 울음을 멈추어라

